

간호학생의 진로 및 취업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추 수 경* · 전 은 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직업은 과거와는 달리 생계수단 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 실현의 “장”인 동시에 그 사람의 사회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간호직은 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의 변천과 요구에 따라 철학이 변화 발전하게 되며 전문직으로서 개인의 책임이 수반되는 지적 조작과 행위를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학문과 업무분야에 있어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이 요구된다.

전문직업인은 개인보다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민감하며 개인의 목적보다 사회목적 도달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전문직 간호사는 예방적, 치료적 측면에서 특정한 일을 해야하며, 현재 간호기술을 개선하고 간호사나 건강요원을 지도, 감독하는 일을 지도력있게 수행하고 지역, 국가, 국제사회 단위에서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타직업과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직업의 선택은 인간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게 되어 직업에 대한 확신에

찬 직업윤리와 철학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근래에 간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직업 윤리 결여, 자기개발 및 창의성 결여, 확고한 직업의식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전문인으로서의 의식과 자질이 결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직업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시켜 이직률을 높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학 전문대 학생들이 3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올바른 취업 준비와 직장 선택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함으로써, 향후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직장에 보다 잘 적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로 및 취업 지도 방안을 모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진로 및 취업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간호학을 전공한 전문대 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와 직업관을 조사하고, 둘째, 실제로 직장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탐색 행태 및 직장 선택 기준 그리고 의사결정 및 선택 상황을 분석하며, 셋째, 의사결정 평가 단계로서 향후 이직 성향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 서울보건대학
** 경인여자대학

2. 연구 목적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적극성 여부와 향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지도방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입학전 경력, 학과선택 동기)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지 살펴본다.

둘째, 일에 대한 인지와 태도 그리고 직업관을 조사하여, 학생들의 일의 어떤 측면(표출적, 정의적, 도구적 측면)에서 일을 하고자 하며 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전문기술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세째, 진로결정 및 취업을 대비한 정보탐색 경향을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다.

네째,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선택기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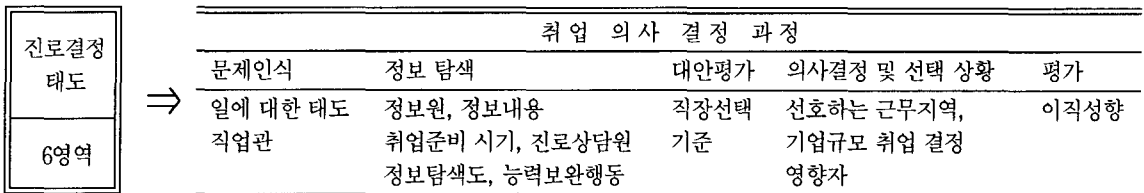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다.

다섯째, 선호하는 근무지역과 입사 희망병원의 규모, 취업결정 영향자 등 의사결정 및 선택 상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다.

여섯째, 이직 성향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취업후 학생들의 이직 의도와 직업 만족에 미치는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학생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러한 평가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취업 후의 이직률을 낮추고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II. 문헌 고찰

1. 진로결정의 개념

진로계획은 생애계획 또는 인생의 설계로서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와 능력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실천하여야 한다. 장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먼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며 능력, 적성, 흥미, 성격에 알맞는 자기이해와 탐색을 통하여 객관성있는 인생설계를 세우기 위하여는 다양한 진로정보를 수집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성공률이 높고 만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열망, 기본능력, 인간관계에 대한 관찰과 분석, 개인의 진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

고 해결방법안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진로목표를 알맞게 선택하여야 한다.

조재천(1991)은 진로선택이란 직업선택과정의 핵심이 되므로 장차 어떠한 직업인이 될 것인가 하는 직업결정이 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직업선택의 과정을 ① 직업선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②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③ 가능하면 직업을 열거하여 각 직업에서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고, ④ 각 직업에서의 성공가능성과 가치평가를 한 다음, ⑤ 직업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진로결정 요인

강무섭(1984)은 진로결정요인을 개인적, 사회

적·경제적, 교육체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개인적 진로결정요인을 내재적, 외재적으로 구분하였고 내재적요인으로는 연령, 성, 능력, 인성, 직업적 흥미, 신체적 조건등을 포함하며 외재적 요인은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자녀에대한 기대, 가치관, 진로관등으로 보았다. 둘째, 사회경제적 진로결정요인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기술의 혁신, 학생인구의 증가, 사회의 직업관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셋째, 교육체제적 진로결정 요인을 학교배경, 교육정책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학교배경요인은 학교의 중점정책, 진로지도활동, 교수진, 동료집단의 성격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정근(1984)은 진로결정요인을 첫째 능력요인으로 일반지식과 적성 둘째 직업적 흥미요인으로 특정직업이나 직업분야에 대한 흥미, 셋째 인성요인으로 자아개념, 가치관, 욕구, 대인관계등의 성격적특성 넷째 학력요인으로는 개인이 받은 교육수준 다섯째 가정배경요인으로 가족구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관, 부모의 가정교육태도로 보았다. 그리고 여섯째 경제상태 요인으로는 직업세계의 구조, 과학기술의 발달, 봉급수준 일곱째 신체적 조건 요인으로 체력, 신장, 용모, 체중 등 직업에 요구되는 조건 여덟째 학교요인으로 학교의 성격, 교육과정, 교우관계, 교수와 학생의 관계, 서클활동등의 요인에 따라 개인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진로결정은 장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먼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며 능력, 적성, 흥미, 성격에 알맞는 자기이해와 탐색을 통하여 객관성 있는 인생설계를 세우고 다양한 진로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요인(연령, 성, 능력, 적성, 지능, 신체적조건, 학업성적, 학문적 욕구, 진로관, 흥미, 가치관), 환경적 요인(〈가정요인: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경제력, 종교, 문화시설, 형제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결혼 여부, 가족내서열, 결혼계획〉〈사회심리적 요인: 부모와 본인의 교육포부, 부모의 관심과 격려, 중요한 타인의 영향, 학교요인으로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

수진 등이 진로결정에 영향요인) 직업적 요인(직업의 의미, 직업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직업세계의 변천, 고용시장, 봉급수준, 직장환경, 보너스, 발전가능성, 휴가, 직장내 인간관계, 직업명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에 있어서의 취업 또는 진로에 관한 연구는 조영희(1975)의 “간호학생의 졸업후 취업 희망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고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로는 한성숙(1992)의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실상과 의사결정연구” 등으로 간호대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진로결정의 문제는 대학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준비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로서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로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과 교수의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진로 및 취업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S전문대학 간호과 1, 2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유의적인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세번에 걸친 소집단 토의를 통하여 연구자들이 질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 2학년 학생 각 60명씩을 대상으로 1995년 11월 10일-13일까지 실시하였다. 예비조사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1995년 11월 20일-25일까지 응답자 스스로 기입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임의작성한 설문지로서, 총 64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 문항(학년, 주야간, 성별, 연령, 입학전 경력, 학과선택 동기), 진로 결정 태도 6문항(아르바이트 신청이유, 현장감각 습득, 기술배양 경험여부, 산업체 인사 초청 취업특강에 대한 관심도, 장래 직업계획, 졸업후 진로와 취업, 학과 전공과 취업), 문제 인지 28문항(일에 대한 인지 21문항, 태도 1문항, 직업관 6문항), 정보탐색 6문항, 대안평가 1문항, 의사결정 및 선택 상황 3문항, 평가 13문항(이직성향)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연구내용별 통계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requency, 백분율, 평균, Chi-square,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변수로는 입학전 경력, 학과선택 동기로 분류하여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입학전 경력은 고교졸업후 바로 입학이 47.5%로 가장 많았고, 직장생활후 입학(40.8%), 재수후 입학(10.0%), 대(전문대)졸 또는 중퇴후 입학(1.7%)순이었다. 학과선택 동기는 취업전망이 51.2%로 가장 높았고 적성, 흥미, 이상실현이 38.8%, 합격우선 9.9%였고 성적과 합격선 고려는 없었다.

2. 진로결정에 대한 태도

1) 진로결정태도에 대한 전체 분포

진로결정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신청이유, 현장감각 습득 및 기술배양 경험여부, 산업체와 인사초청 취업특강 관심도, 장래 직업계획에 대한 태도, 졸업후 진로와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120)

구 분	항 목	빈도 (%)
입학전 경력	고교 졸업	57(47.5)
	재수	12(10.0)
	직장생활	49(40.8)
	대졸·중퇴	2(1.7)
학과 선택동기	취업전망	62(51.2)
	적성·흥미·이상	47(38.8)
	성적과 합격선 고려	0(0.0)
	합격우선	12(9.9)

취업계획, 학과 전공과 취업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2>.

(1) 아르바이트 신청이유

아르바이트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신청했거나 앞으로 신청한다면 그 이유를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이유로 나누어 순서대로 두가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이유는 「돈벌이 보다는 사회적 경험을 위해서」와 「돈벌이도 하고 사회경험도 하고 싶어서」를 포함하였으며, 경제적 이유는 「학비, 용돈, 유학비, 학습교재 및 교구비 등의 마련을 위해서」를 나타낸다. 정서적 이유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므로」, 「국가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여가선용」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는 첫번째 이유로는 돈벌이를 위한 경제적 이유가 60.6%로 가장 높았고 사회경험을 위한 사회적 이유가 39.2%, 정서적 이유 0.8% 순이었다. 두번째 이유로는 사회적이유 47.5%, 경제적이유 44.2%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정서적 이유는 8.3%로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사회경험 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장감각 습득 및 기술배양 경험여부

현장감각 습득 및 기술배양 경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하였거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 무경험(26.4%)에 비해 유경험(73.6%)이 훨씬 높았다.

(3) 산업체 인사 초청 취업특강에 대한 관심도

「산업체 인사 초청 취업특강에 관심이 있다」가

43.0%로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41.3%), 「없다」(15.7%)로 나타나 특강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가 낮으며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장래 직업계획에 대한 태도

응답자중 68.6%가 장래 직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울 계획이다」(24.8%), 「세우지 않았다」(6.6%)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래 직업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졸업후 진로와 취업에 대한 태도

졸업후 진로 방향이 「반드시 취업하겠다」와, 「취업과 편입을 동시에 하겠다」 등 취업인 경우

가 93.3%로 가장 많았고, 「편입, 유학」 등 학업 계속이 1.7%, 그리고 가사 및 기타가 12.0%로 나타났다.

(6) 학과 전공과 취업에 대한 태도

졸업후 진로방향이 학과 전공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반드시 전공과 관련」되는 곳이 84.3%로 가장 많았고, 「가능한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이 13.2%, 「전공과 무관」이 2.5%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되는 직장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역할에 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진로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N=120)

구 분	항 목	빈도 (%)	
아르바이트 신청이유	첫번째이유	사회적 이유	47(39.2)
		경제적 이유	72(60.0)
		정서적 이유	1(0.8)
	두번째이유	사회적 이유	57(47.5)
		경제적 이유	53(44.2)
		정서적 이유	10(8.3)
현장감각 습득·기술배양 경험 여부	유	88(73.6)	
	무	32(26.4)	
산업체 인사초청 취업 특강에 관한 관심도	관심없다.	19(15.7)	
	그저 그렇다	50(41.2)	
	관심있다.	52(43.0)	
장래 직업 계획	세우지 않았다.	8(6.6)	
	세울 계획이다	30(24.8)	
	세웠다.	83(68.6)	
졸업후 진로와 취업	취업(취업·자영업·취업+편입)	112(93.3)	
	편입·유학등 학업 계속	2(1.7)	
	가사 및 기타	6(5.0)	
학과전공과 취업	반드시 전공	102(84.3)	
	가능하면 전공	16(13.2)	
	전공과 무관	3(2.5)	

3. 일에 대한 문제인식 단계(일에 대한 태도, 직업관)

1) 일에 대한 문제인식의 전체분포

(1) 일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 즉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만일 평생 살기에 족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표 3>과 같다.

「일을 하지 않고 살겠다」가 (39.8%),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더 많이 불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39.0%)로 나타났다.

〈표 3〉 일에 대한 태도

문항	빈도 (%)
일하지 않고 살겠다.	7(5.9)
꼭 해야할 일만 하고 살겠다.	18(15.3)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겠다.	47(39.8)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겠다.	46(39.0)
계	118(100)

(2) 직업관

본 연구에서는 S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좋은 직업의 의미, 성공한 사람의 의미, 전공분야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성공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직장에 근무할 때 필요한 직업능력을 조사하였다.

① 「좋은 직업」의 의미

「좋은 직업」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는 순서대로 세가지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좋은 직업의 의미

문항	좋은 직업의 의미		
	첫째 빈도(%)	둘째 빈도(%)	셋째 빈도(%)
수입	8(6.8)	13(11.0)	14(12.0)
적성	34(48.6)	18(15.3)	6(5.1)
장래성	6(8.6)	29(24.6)	27(23.1)
안정성	4(5.7)	13(11.0)	15(12.8)
사회적 인정·대우 좋음·일의편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5(7.1)	12(10.2)	26(22.2)
사회에 공헌하는 직업	1(1.4)	3(2.5)	12(10.3)
계	72(100)	118(100)	117(100)

첫번째로 많이 지적한 것이 적성에 맞는 직업(48.6%)이었고, 다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20.0%)이었다. 두번째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25.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

위로 장래성 있는 직업(23.1%), 사회적 인정·인간적 대우 높음·일의 편함(22.2%),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14.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성에 맞는 직업과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장 좋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직업은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② 「성공한 사람」의 의미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의미를 질문한 결과 〈표 5〉와 같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있는 사람(43.3%)을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자기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29.2%), 사회적 명성과 권력(14.2%), 돈을 많이 번 사람(13.3%)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5〉 성공한 사람의 의미

문항	빈도 (%)
돈을 많이 버는 사람	16(13.3)
사회적 명성과 권력을 가진 사람	17(14.2)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있는 사람	52(43.3)
자기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	35(29.2)
계	120(100.0)

③ 「전공분야 직업 선택시 만족도」

전공분야 진로를 택한다면 그 직업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할 것인가를 조사하였다(표 6).

그 결과 「만족한다」가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매우 만족한다」 22.3%순이었다. 또한 대체로 불만이다.(1.7%), 매우 불만이다가 0.8%로 나타나 전공분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전공분야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문항	빈도 (%)
매우 불만	1(0.8)
대체로 불만	2(1.7)
그저 그렇다	19(15.7)
대체로 만족	72(59.5)
매우 만족	27(22.3)
계	121(100.0)

한편 전공 분야에 대한 불만족, 보통, 만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7>과 같다.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성(32.7%), 일의 내용(23.5%), 안정성(22.4%) 순이었으며, 불만족의 이유로는 대인관계·사회적 지위(33.3%), 일의 내용(33.3%), 적성(33.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성, 일의내용, 안정성등이 직업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전공분야의 직업에 대한 반응 이유

문항	이유		
	불만족 빈도(%)	그저그렇다 빈도(%)	만족 빈도(%)
수입	0(0.0)	2(10.5)	5(5.1)
인간관계·사회적 지위	1(33.3)	1(5.3)	2(2.0)
일의 내용	1(33.3)	11(57.9)	23(23.5)
안정성	0(0.0)	1(5.3)	22(22.4)
장래성	0(0.0)	1(5.3)	14(14.3)
적성	1(33.3)	3(15.8)	32(32.7)
계	3(100)	19(100)	98(100)

④ 「성공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표 8>과 같다. 첫번째 조건으로 능력(56.5%)을 꼽았고 그 다음이 노력 및 정신력(19.7%), 학벌(16.2%) 순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중요한 조건으로는 노력 및 정신력(32.5%)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능력(23.9%), 학벌(23.9%) 순이었으나 학연·지연·혈연도 12.8%로 높게 나타났다

<표 9> 직장 근무시 필요한 직업 능력

문항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업무수행 능력	58(49.2)	33(28.0)	14(11.9)	7(6.0)	1(0.9)	4(3.4)
직업적 품성	33(28.0)	24(20.3)	21(17.8)	15(12.8)	17(14.7)	8(6.9)
인간관계 처리능력	16(13.6)	23(19.5)	33(28.0)	17(14.5)	14(12.1)	14(12.1)
목적달성 능력	1(0.8)	8(6.8)	23(19.5)	22(18.8)	31(26.7)	32(27.6)
문제해결 능력	7(5.9)	25(21.2)	19(16.1)	34(29.1)	24(20.7)	9(7.8)
창조개발 능력	3(6.5)	5(4.2)	8(6.8)	22(18.8)	29(25.0)	49(42.2)
계	118(100)	118(100)	118(100)	117(100)	116(100)	116(100)

며, 인맥(4.3%)이나 운·요령·기타(2.6%)도 성공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표 8> 성공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문항	첫째	둘째
	빈도(%)	빈도(%)
능력	65(56.5)	28(23.9)
학벌	19(16.2)	28(23.9)
인맥	5(4.3)	5(4.3)
노력 및 정신력	23(19.7)	38(32.5)
운·요령·기타	1(0.9)	3(2.6)
학연·지연·혈연	4(3.4)	15(12.8)
계	117(100)	117(100)

⑤ 「직장 근무시 필요한 직업능력」

직장근무시 필요한 직업 능력으로는 업무 수행 능력(전문적 지식, 기능, 건강), 직업적 품성(책임감, 적극성, 협조성, 대응성, 지속성), 인간관계 처리능력, 목적달성 능력(기획력, 추진력), 문제 해결 능력(분석적, 판단력, 질충력, 총괄력), 그리고 창조개발 능력(연구심, 감수성, 집중력)등 6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6가지 능력을 중요한 순서대로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첫번째 두번째 모두 업무수행 능력(49.2%, 28.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번째로는 인간관계 처리능력(28.0%), 네번째, 다섯번째 문제해결능력(29.1%, 20.7%), 여섯번째로는 창조개발능력(42.2%), 목적달성능력(27.6%) 순으로 나타났다.

4.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정보탐색 단계

1)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정보탐색의 전체분포 (1)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정보원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정보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취업정보자료나 기관에서 나오는 안내서 및 전문지(36.8%)이었으며, 학생생활연구소·교수·조교가 35.0%로 그 다음으로 높으며 친구·선배가 23.9%, 매스컴·홍보물이 4.3%의 순이었다(표 10).

두번째 정보원으로는 친구·선배가 3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안내서·전문지(23.0%), 학생생활연구소·교수·조교(23.0%)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매스컴·홍보물이 1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정보자료나 기관에서 나오는 안내서 및 전문지 학생생활연구소·교수·조교 그리고 친구·선배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매스컴이나 홍보물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이해임 외(1996)의 연구에서 학생생활연구·학과 교수 및 조교에게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19.9%로 비교적 낮은 것과 비교할 때 간호과 학생들의 학과 교수 및 조교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진로 및 취업 정보원

문 항	진로 및 취업정보원	
	첫 째	둘 째
	빈도(%)	빈도(%)
취업정보 자료나 기관에서 나오는 안내서 및 전문잡지·학원	43(36.8)	26(23.0)
친구·선배	28(23.9)	40(35.4)
신문광고 등 매스컴·병원 홍보물	5(4.3)	21(18.6)
학생생활 연구소·교수·조교	41(35.0)	26(23.0)
계	117(100)	113(100)

(2) 가장 알고 싶은 정보내용

〈표 11〉에서 보듯이 가장 알고 싶은 첫번째, 정

〈표 11〉 가장 알고 싶은 병원 정보 내용

문 항	병원 정보내용	
	첫 째	둘 째
	빈도(%)	빈도(%)
채용 방법 및 면접·필기시험 내용	55(45.5)	26(21.5)
직종별 직무내용	15(12.4)	4(3.3)
사업내용·방향·사품·인사 및 교육제도	12(9.9)	13(10.7)
급여·복지후생·근무조건	39(32.2)	78(64.5)
계	121(100)	121(100)

보내용은 채용방법·면접·필기 시험내용(45.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급여·복지후생 근무조건이 32.2%, 직종별 직무내용(12.4%), 사업내용·방향·사품·인사 및 교육제도 9.9%순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정보내용은 급여·복지후생·근무조건이 64.5%로 월등히 높았으며 채용방법·면접·필기시험 내용이 21.5%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로는 채용방법·면접·필기시험 내용과 급여·복지후생·근무조건 등으로 나타났다.

(3) 진로 및 취업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 탐색도
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어느정도 노력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표 12〉와 같다. 「관심은 있으나 전혀 노력해 오지 않았다」가 39.2%, 「대체로 노력해왔다」가 38.3%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방향은 결정했으나 학교나 친지에 의존했다」 16.7%,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5.0%에 불과했다.

〈표 12〉 진로 및 취업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 탐색도

문 항	빈도 (%)
전혀 관심이 없다.	1(0.8)
관심은 있으나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47(39.2)
방향만 결정했을 뿐 학교나 친지에 의존했다.	20(16.7)
대체로 노력해 왔다.	46(38.3)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6(5.0)
계	120(100)

위 결과를 볼 때 학생의 대다수가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에 있어 소극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도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4) 진로결정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적당한 시기
진로 및 취업준비를 위한 적당한 시기로는 2학년 2학기 이상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1학기 30.0%, 1학년 2학기 15.8%, 입학후 바로도 11.7%이었다<표 13>.

따라서 진로 및 취업준비를 위한 시기는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여 3년 졸업과정중 2년 동안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학생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와 취업을 결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표 13> 진로결정 및 취업준비를 위한 적당한 시기

문 항	빈도 (%)
입학 후 바로	14(11.7)
1학년 2학기	19(15.8)
2학년 1학기	37(30.0)
2학년 2학기 이상	50(41.7)
계	120(100)

(5) 진로 및 취업 상담원

<표 14>와 같이 자신의 진로 및 취업을 상담하는 첫번째 대상으로는 부모와 형제, 선배와 친구가 똑같이 29.2%로 가장 높았고, 학생생활 연구소·교수·조교(25.0%), 혼자서 13.7% 순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대상으로는 학생생활연구소, 교수, 조교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볼 때 부모·형제, 선배·친구, 그리고 교수·조교와 상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 편견과 주관이 개입되어 진로 지도상 오류를 범하게 될 소인이 적은 편이나 혼자서 진로와 취업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학과나 교수·조교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상담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 14> 진로 및 취업 상담원

문 항	첫 제	둘 제
	빈도(%)	빈도(%)
부모·형제	35(29.2)	21(17.9)
선배·친구	35(29.2)	38(32.5)
학생생활연구소·교수·조교	30(25.0)	42(35.9)
혼자서	20(16.7)	16(13.7)
계	110(100)	117(100)

(6) 취업 준비 및 부족한 업무수행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행동

현재 취업준비를 위해 또는 부족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표 15>와 같다.

졸업전에 보완할 계획이 47.5%, 보완할 계획 없음이 31.4%, 보완하고 있음 21.2% 순으로 현재 보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 78.9%로서 대다수이며 현재 보완하고 있는 학생은 21.2%에 불과하다.

<표 15> 취업준비 및 부족한 업무수행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행동

문 항	빈도 (%)
보완하고 있다	25(21.2)
보완할 계획이다	56(47.5)
보완할 계획도 없음	37(31.4)
계	118(100)

5. 취업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평가 단계

1)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되는 항목을 13가지로 구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세가지씩 조사하였다<표 16>.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고려항목은 적성과 흥미(33.9%)이었으며 그 다음은 수입(14.9%), 일을 통한 보람(9.9%), 분위기 및 인간관계(9.9%), 안정성(7.4%), 능력 발휘(6.6%) 순이었다.

두번째로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수입(17.5%),

〈표 16〉 직장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

문항	첫째	둘째	셋째
	빈도(%)	빈도(%)	빈도(%)
사회적 인식	6(5.0)	2(1.7)	4(3.3)
일을 통한 보람	12(9.9)	9(7.5)	12(9.9)
수입	18(14.9)	21(17.5)	20(16.5)
장래성	7(5.8)	14(11.7)	20(16.5)
안정성	9(7.4)	12(10.0)	9(7.4)
직장규모	1(0.8)	1(0.8)	3(2.5)
적성·흥미	41(33.9)	19(15.8)	9(7.4)
근무시간·휴일	3(2.5)	8(6.7)	10(8.3)
직장의 위치	1(0.8)	2(1.7)	2(1.7)
직장의 분위기·인간관계	12(9.9)	14(11.7)	15(15.4)
종업원의 후생복지	3(2.5)	6(5.0)	5(4.1)
사회공헌도	0(0.0)	1(0.8)	4(3.3)
개인의 능력 발휘	8(6.6)	11(9.2)	8(6.6)
계	121(100)	120(100)	126(100)

적성과 흥미(15.8%), 장래성(11.7%), 분위기 및 인간관계(11.7%) 순이었고, 세번째로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수입(16.5%)과 장래성(16.5%)이 가장 높았고 분위기와 인간관계(15.4%), 일을 통한 보람(9.9%), 근무시간·휴일(8.3%) 순이었다. 그러나 직장선택시 직장규모나 직장 위치, 사회공헌도는 극히 낮은 고려 항목이었다.

6. 취업의사 결정 및 선택 상황 단계

취업의사 결정 및 선택 상황단계에서는 선호하는 근무지역과 입사 퇴사 규모, 진로 및 취업결정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취업의사결정 및 선택상황 단계의 전체분포 (1) 선호하는 근무지역

선호하는 근무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원하는 직장이라면 근무지역이 서울이든 기타 지역이든간에 모든 것을 불문하고 어디든지 근무하겠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근무지역을 고려하겠다고 47.1%이었으며 고려하지 않겠다고 39.7%이었고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21.5%로 나타나 직장선택시 학생들은 근무지

역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7〉 선호하는 근무지역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근무하겠는가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26(21.5)
대체로 그렇지 않다.	31(25.6)
그저 그렇다.	16(13.2)
대체로 그렇다.	36(29.8)
확실히 그렇다.	12(9.9)
계	121(100)

(2) 선호하는 입사병원의 규모

입사하는 병원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표 18〉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78.2%에서 되도록 종합병원이면 좋겠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관없음이 9.7%, 꼭 종합병원이어야 함 7.6%, 중소병원 5.0% 순이었다.

따라서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모교의 학생을 배출시키는 대학부속 종합병원이기 보다는 각종 중소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도가 요구된다.

〈표 18〉 입사희망 병원의 규모

문항	빈도 (%)
반드시 종합병원	9(7.6)
되도록 종합병원	93(78.2)
중소병원	6(5.0)
상관없다	11(9.2)
계	119(100)

(3) 진로 및 취업 결정 영향 요인

진로 및 취업 결정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거나 미치는 요인을 순서대로 두가지를 조사한 결과 〈표 19〉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첫번째 요인은 본인의 의사(79.8%), 부모님 의사(9.2%), 교수 및 조교(8.4%), 친구·선배(2.5%) 순이었다. 두번째는 교수·조교 37.1%, 부모님 의사 34.5%, 친구·선배 15.5%, 본인의 의사 12.9%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및 취업결정시 본인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며, 두번째 영향요인으로 교수 및 조교의

영향이 37.1%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진로 및 취업 결정시 교수 및 조교의 영향이 매우 크게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19〉 진로 및 취업 결정 영향요인

문항	첫째	둘째
	빈도(%)	빈도(%)
본인 의사	95(79.8)	15(12.9)
부모님 의사	11(9.2)	40(34.5)
친구·선배의 충고	3(2.5)	18(15.5)
학생생활연구소·조교·교수의 충고	10(8.4)	43(37.1)
계	119(100)	116(100)

7. 취업 의사결정에 관한 평가 단계

〈표 20〉 이직 성향

이 직 요 인 취업후 본인이 기대했던 것 보다.....	평균	순위
1. 보수가 적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4.16	12
2. 근무 분위기 및 작업환경이 좋지 않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5.38	5
3. 종업원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4.96	7
4. 상사와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4.40	10
5.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4.07	13
6.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이 길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4.54	9
7. 직장의 안정성 및 장래성이 없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5.78	1
8.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내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없거나 자신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5.53	4
9. 업무가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5.72	2
10. 업무에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5.12	6
11. 능력에 맞는 대우가 미흡하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4.87	8
12.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작업이 고되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4.31	11
13.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직하는 것이 좋다.	5.69	3
총 평 균	5.18/7점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S전문대학 간호과 1, 2학년생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과 진로 결정에 대한 태도와 직업관, 정보탐색경향, 직장 선택기준, 취업결정 영향자, 이직성향 등을 조사하여 직장을 선택

전문대학생들의 이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취업후의 이직률 감소와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이직 성향을 조사하며 앞으로 학생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매우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이직 성향의 전체 분포

이직 요인별 순위를 보면 〈표 20〉과 같다. 안정성 및 장래성이 5.7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성(5.72), 능력에 미흡한 대우(5.69), 능력개발·발휘(5.53), 근무 분위기(5.38), 보람(5.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 인간관계, 근무시간, 업무량등은 낮게 나타나 중요한 이직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하고 결정할 때의 고려할점과 취업후 이직률을 낮추고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실시하였으며 관련된 설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입학전 경력은 고교졸업후 바로 입학이 47.5%로 가장 많았고, 직장생활후 입학(40.8%), 재수후 입학(10.0%), 대(전문대)졸 또는 중퇴후 입

학(1.7%) 순이었다. 학과선택 동기는 취업전망이 51.2%로 가장 높았고 적성, 흥미, 이상실현이 38.8%, 합격우선 9.9%였고 성적과 합격선 고려는 없었다.

2) 조사대상자의 진로결정에 대한 태도

- (1)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는 첫번째 이유로는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 이유가 60.6%로 가장 높았고 사회경험을 위한 사회적 이유가 39.2%, 정서적 이유 0.8% 순이었다. 두번째 이유는 사회적 이유 47.5%, 경제적이유 44.2%로 비슷하였고 정서적 이유는 8.3%로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사회경험 보다는 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현장감각 습득 및 기술배양 경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하였거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 무경험(26.4%)에 비해 유경험(73.6%)이 훨씬 높았다.
- (3) 산업체 인사 초청 취업특강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산업체 인사 초청 취업특강에 관심이 있다」가 43.0%로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41.3%), 「없다」(15.7%)로 나타나 특강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가 낮으며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응답자중 68.6%가 장래 직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울 계획이다」(24.8%), 「세우지 않았다」(6.6%)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래 직업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졸업후 진로방향이 「반드시 취업하겠다」와, 「취업과 편입을 동시에 하겠다」 등 취업인 경우가 93.3%로 가장 많았고, 「편입, 유학」 등 학업 계속이 1.7%, 그리고 가사 및 기타가 12.0%로 나타났다.
- (6) 졸업후 진로방향이 학과 전공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반드시 전공과 관련」되는 곳이 84.3%로 가장 많았고, 「가능한 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이 13.2%, 「전

공과 무관」이 2.5%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역할에 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일에 대한 문제인식 단계(일에 대한 태도, 직업관)

(1) 일에 대한 문제인식의 전체분포

- ① 일에 대한 태도 즉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만일 평생 살기에 족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일을 하지 않고 살겠다」가(39.8%),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더 많이 불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39.0%)로 나타났다.

② 직업관

「좋은 직업」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가는 순서대로 세가지 조사한 결과 첫번째로 많이 지적한 것이 적성에 맞는 직업(48.6%)이었고, 다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20.0%)이었다.

두번째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25.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위로 장래성 있는 직업(23.1%)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인정·인간적 대우 높음·일의 편함(22.2%),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14.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성에 맞는 직업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장 좋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직업은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의미를 질문한 결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있는 사람(43.3%)을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자기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29.2%), 사회적 명성과 권력(14.2%), 돈을 많이 번 사람(1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공분야 진로를 택한다면 그 직업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가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매우 만족한다 22.3%순이었다. 또한 대체로 불만이다.(1.7%), 매우 불만이다가 0.8%로 나타나 전공분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공 분야에 대한 불만족, 보통, 만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적성」(32.7%), 일의 내용(23.5%), 안정성(22.4%) 순이었고 불만족의 이유로는 대인관계·사회적 지위(33.3%), 일의 내용(33.3%), 적성(33.3%)으로 나타났다.

「성공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으로 능력(56.5%)을 꼽았고 그 다음이 노력 및 정신력(19.7%), 학벌(16.2%)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으로는 노력 및 정신력(32.5%)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능력(23.9%), 학벌(23.9%) 순이었으나 학연·지연·혈연도 12.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맥(4.3%)이나 운·요령·기타(2.6%)도 성공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직장근무시 필요한 직업 능력을 중요한 순서대로 조사한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업무수행 능력(49.2%, 28.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처리능력(28.0%),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해결능력(29.1%, 20.7%), 여섯 번째로는 창조개발능력(42.2%), 목적달성능력(27.6%) 순으로 나타났다.

4)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정보탐색 단계

(1)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정보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취업정보자료나 기관에서 나오는 안내서 및 전문지(36.8%)이었으며, 학생생활연구소·교수·조교가 35.0%로 그 다음으로 높으며 친구·선배가 23.9%, 매스컴·홍보물이 4.3%의 순이었다. 두 번째 정보원으로는 친구·선배가 3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안내서·전문지(23.0%), 학생생활연구소·교수·조교(23.0%)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매스컴·홍보물이 1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정보자료나 기관에서 나오는 안내서 및 전문지 학생생활연구소·교수·조교 그리고 친구·선배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매스컴이나 홍보물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이해임 외(1996)의 연구에서 학

생생활연구소·학과 교수 및 조교에게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19.9%로 비교적 낮은 것과 비교할 때 간호와 학생들의 학과 교수 및 조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가장 알고 싶은 첫 번째 정보내용은 채용방법·면접·필기 시험내용(45.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급여·복지후생 근무조건이 32.2%, 직종별 직무내용(12.4%), 사업내용·방향·사풍·인사 및 교육제도 9.9%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보내용은 급여·복지후생·근무조건이 64.5%로 월등히 높았으며 채용방법·면접·필기시험 내용이 21.5%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로는 채용방법·면접·필기시험 내용과 급여·복지후생·근무조건 등으로 나타났다.
- (3) 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어느정도 노력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관심은 있으나 전혀 노력해 오지 않았다가 39.2%, 대체로 노력해 왔다가 38.3%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방향은 결정했으나 16.7%, 매우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5.0%에 불과했다.
- (4) 진로 및 취업준비를 위한 적당한 시기로는 2학년 2학기 이상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1학기 30.0%, 1학년 2학기 15.8%, 입학후 바로도 11.7%이었다. 따라서 진로 및 취업준비를 위한 시기는 2학년 1학기 부터 시작하여 3년 졸업과정중 2년 동안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학생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와 취업을 결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5) 자신의 진로 및 취업을 상담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는 부모와 형제, 선배와 친구가 똑같이 29.2%로 가장 높았고 학생생활 연구소·교수·조교(25.0%), 혼자서(16.7%) 순으로 나타났다.
- (6) 현재 취업준비를 위해 또는 부족한 업무 수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졸업전에 보완할 계획이 47.5%, 보완할 계획없음이 31.4%, 보완하고 있음 21.2% 순으로 현재 보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 78.9%로서 대다수이며 현재 보완하고 있는 학생은 21.2%에 불과하다.

5) 취업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평가 단계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중 첫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적성과 흥미(33.9%)이었으며 그 다음은 수입(14.9%), 일을 통한 보람(9.9%), 분위기 및 인간관계(9.9%), 안정성(7.4%), 능력 발휘(6.6%) 순이었다.

두번째로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수입(17.5%), 적성과 흥미(15.8%), 장래성(11.7%), 분위기 및 인간관계(11.7%)순이었고, 세번째로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수입(16.5%)과 장래성(16.5%)로 가장 높았고 분위기와 인간관계(15.4%), 일을 통한 보람(9.9%), 근무시간·휴일(8.3%) 순이었다.

그러나 직장선택시 직정규모나 직장 위치, 사회공헌도는 극히 낮은 고려항목이었다.

6) 취업의사 결정 및 선택 상황 단계

(1) 근무지역을 고려하겠다고 47.1%이었으며 고려하지 않겠다고 39.7%이었고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21.5%로 나타나 직장선택시 학생들은 근무지역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조사대상자의 78.2%에서 되도록 종합병원이면 좋겠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관없음이 9.7%, 꼭 종합병원이어야 함 7.6%, 중소병원 5.0% 순이었다.

따라서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모교의 학생을 배출시키는 대학부속 종합병원이기 보다는 각종 중소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로 및 취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첫번째 요인은 본인의 의사(79.8%), 부모님 의사(9.2%), 교수 및 조교(8.4%), 친구·선배(2.5%) 순이었다. 두번째는 교수·조교

37.1%, 부모님·의사 34.5%, 친구·선배 15.5%, 본인의 의사 12.9%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및 취업결정시 본인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며, 두번째 영향요인으로 교수 및 조교의 영향이 37.1%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진로 및 취업 결정시 교수 및 조교의 영향이 매우 크게 미침을 알 수 있다.

7) 취업 의사결정에 관한 평가 단계

이직 성향으로는 안정성 및 장래성이 5.7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성(5.72), 능력에 미흡한 대우(5.69), 능력개발·발휘(5.53), 근무분위기(5.38), 보람(5.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 인간관계, 근무시간, 업무량 등은 낮게 나타나 중요한 이직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2. 제 언

첫째, 학생들이 진로결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의식교육과 취업지도가 실시되고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전공관련 산업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업체인사 초빙, 특강 내용, 특강료, 학생들에 대한 홍보 등 여러 측면에서 질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동태적 의식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전문기술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직업관을 확립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인간은 결국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해야만이 사회적 기능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므로, 자신의 일이 어느 정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을 개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거나 성공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도 직장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철저한 직업윤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학과교수 및 조교와 졸업 선배에 의한 취업 정보 전달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상담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생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적합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개개인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신상변화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터놓고 편안하게 자주 상담할 수 있는 상담분위가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취업에 관심은 많으나 정보획득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은 적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학생지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는 달리 병원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시켜 졸업 전에 부족한 업무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보완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학생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선택한 직업에 잘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직장이 선택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즉 학생들은 적성에 맞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보람을 느끼는 장래성이 있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며 성공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적성·흥미와 수입을 고려하여 직장을 선택하고자 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취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취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각종 중소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근무지역과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다. 따라서 자신이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능력에 맞는 원하는 병원이라면 근무지역과 병원의 규모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진취적 사고를 지니도록 취업지도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요한 이직요인은 안정성 및 장래성, 적성, 능력에 미흡한 대우 등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장을 선택할 때 앞으로의 장래성 및 안정성과 적성을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논문의 제언을 토대로 향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의식 및 직업에 대한 만족도, 이직성향, 기타 문제점 등이 조사된다면 졸업생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재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도방안 모색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강무섭, 박영숙 (1984). 학생의 진로결정과정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 김영균 (1993). 전문대학의 취업지도에 대한 조사분석. 전문대학교육, 10호.
- 노영준 (1996). 전문대학의 당면과제 -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대학교육, 22호, 36-42.
- 노승혁 (1995). 세계화와 전문대학의 진로. 전문대학교육, 17호, 10-13.
- 박영숙 (1993). 전문대학의 직업기술 교육활성화 방안. 전문대학교육, 9호.
- 이문우 (1995). 21세기를 향한 한국전문대학 교육의 진로모색. 전문대학교육, 16호, 4-7.
- 이병헌 (1992). 졸업생의 진로와 바람직한 직업관. 전문대학교육, 8호.
- 이정근 (1980).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중앙적성출판사, 서울.
- 이주성 (1989). 92학년도 취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 전문대학교육, 8호.
- 정기영 (1992). 전문대학의 기술교육과 취업전망. 전문대학교육, 8호.
- 정태용 (1995). 교육개혁과 전문대학의 발전방향. 전문대학교육, 18호, 14-35.
- 조재천 (1991).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진로결정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봉 (1992). 취업지도 방향과 직업관 확립문제. 전문대학교육, 8호.
- 이군현 (1995). 전문대학의 개혁. 전문대학교육, 12호, 11-17.
- 이봉산 (1995). 21세기를 향한 전문대학의 교육방향. 전문대학교육, 12호, 23-24.
- 이영탁 (1996).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한국교육의

정책방향. 전문대학교육, 21호, 39-44.

이용일 (1995). 전문대학이 가야할 길. 전문대학 교육, 25-28.

이혜임, 김을환, 남궁석, 김규동 (1996). 전문대학생의 취업 의사결정 과정. 서울보건전문대학 학생생활연구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5). 전문대학의 산업중심대학 육성전략. 전문대학교육, 12호, 18-22.

황응연 (1996) 변혁시대 대학생 지도와 교직원의 역할. 전문대학교육, 20호, 28-32.

- Abstract -

Key concept : Decision-making process

Process of the Nursing Students Decision-making for Their Course and Job

Chu, Su Kyung · Jun, Eun Mi***

This study examines attitudes among nursing student, attitudes that give direction in life and effect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en seeking employment. The exigency of which derives from the need to design a proper guidance program to assist students in their search for employment.

Data was collected from a survey conducted between November 20 and November 25, 1995, the respondents of which were 120 nursing students without jobs. The data was analyzed by examining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Chi-square, one-way ANOVA, and t-test through an SPSS PC+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 1)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 student's academic major and employment (So responded 84.3% of the subjects with only 2.5% claiming that his major didn't matter).
- 2) Students believe that "good jobs" are secured through aptitude. "Good jobs" are seen as ones which develop an individuals abilities and which offer the opportunity for advancement. However they do not believe that "good jobs" contribute to society.
- 3) Students have not been supplied the proper guidance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finding employment. The student's life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and assistants provide insufficient information and counseling. Personal goals are decisive factors in determining what direction a student may take as well as the kind of employment he will seek. However, advice from parents, siblings, friends, alumni, professors, assistants and counselors is also considered.
- 4) Students do not think it reasonable to base their career decisions on one factor only (33.9% responded that aptitude and personal interest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14.9% that income was the key determinant).
- 5) Location and size of the hospital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choosing a job. There is a preference for larger hospitals.
- 6) A lack of stability and few opportunities for advancement are perceived as the primary reasons for the possibility of leaving one's job.

* Department of Nursing, Seoul Health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ans College